텀블러 인센티브·축제 다회용기 도입 광주 지자체, 일회용품 줄이기 '앞장'

동구, 개인컵 이용시 '동구라미 온' 포인트 300원 적립 광산구, 축제장 다회용기 전면 도입 자원순환 가치 체험

최근 광주시 각 자치구에서 일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보급 확대 등 친환경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5일부터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지난 7월 환경부 탄소포인트 '예비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2026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기를 앞당겨 1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정책은 시민이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텀블러)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동구라미 온 포인트 300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비자는 동구 자원순환 앱 '동구라미 온'을 설 치하고 참여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포인트가 적립된다. 2000 포인트 이상 적립 시에는 현금으로 계좌로 지급된다.

동구는 올해 12월까지 '동구라미 온'에 최초 가

입 시 1500포인트, 월별 이용 상위 20명에게는 3 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카페는 동구라미 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카페나 추천하고자 하는 주민은 자 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2-608-2504)으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부담 없이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도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해 축 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도입하면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에 나섰다.

광산구는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먹거리 공간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행사장 곳곳에 반납함을 배치해 순환 체계를 실현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34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행 사에도 다회용기와 다담컵을 이용해 일회용품 사 용을 최소화했으며, 같은 날 '다시-쓰는 새활용 한 마당' 축제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자원순환 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광산구는 지난 9월에 개최된 제3회 광산뮤직 ON페스티벌과 지난 18일 열린 2025 광산 세계야 시장에서 각각 7만 7345개, 2만 7700개 총 10만 5000여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축제 기간 발생하는 일회용 품 폐기물 절감하고, 축제 참여자의 다회용기 사 용 인식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기를 이용하면서, 축제가 쓰레기 없는 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행 사 전반에 다회용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 서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구청 1층 로비 '아라스 카페'를 비롯해 인근 16개카페에 공유컵인 '그린컵'의 회수·세척·배송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구축했다. 현재까지지원된 공유컵은 5만9947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임택 동구청장은 "홍콩골목은 단순한 이색거리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도심형 야간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안전하고 활기찬 거리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상인 협력을 강 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구시설공단 출범…공공시설물 통합 관리

'홍콩골목' 개장 한달만에 1만7000명 방문 인기

체육시설·교통·환경 등 7개 분야

충장로 상권 활성화 위해 조성

문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억 269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 있다는 것이 동구 설명이다.

광주시 동구가 충장로 상권 활성회를 위해 조성 한 테마거리 '홍콩골목'〈광주일보 2024년 11월 29일 7면〉에 개장 한 달 만에 1만 7000명 넘는 방

광주시 동구는 지난 10월 2일 홍콩골목이 개장

한 이후 한 달 간 입점 점포 4곳에 1만 7210명이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각 점포 월 매출 총합은 3

현재 골목에는 홍콩식 샤브샤브 전문점, 포차형

식당, 양꼬치 전문점, 위스키바 등 4개 점포가 운

영되고 있다. 각 점포에는 평일을 기준으로 평균

500명, 주말에는 700명 이상이 방문객이 찾아오

동구는 오는 21일 광주 러닝크루 '런투유(Run

to You)'와 협업해 DJ 파티형 러닝 이벤트 '홍콩

런(Hong Kong Run)'을 개최하고, 공동주택 미

디어보드 영상홍보, 인플루언서 숏폼 제작 등 온•

광주시 남구 지역의 공공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 3일 남구청사 별관동 2층에

서 남구시설공단이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남구 지역 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문화와 교통, 환경 등 7개 분야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

주로 관리하는 시설물로는 공영주차장과 다목 적체육관, 봉선 테니스장, 현수막 게시대 등이 있

업무를 맡게 된다.

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 온 종량제 봉투 및 음식 물 납부필증 판매·관리 업무도 맡는다.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초대 이 사장을 맡으며, 조직 규모는 경영지원팀과 공공시 설팀, 체육생활팀 3개 팀으로 꾸려졌다.

임 이사장은 "공단 출범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구청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

12월 6일 비엔날레전시관

광주시 북구가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을 위한 대회를 연다.

북구는 다음달 6일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3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지역의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북구가 2023년부터 매 년 전국 단위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 종목은 총 5개 종목(PC 3종목, 모바일 2종목)으로 구성됐다.

PC 3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스타크 래프트 등이며, 모바일 2종목은 브롤스타즈, 포켓 몬카드게임 이다.

이번 대회에는 게임에 관심 있는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게임대회 접수 플랫폼인 vss.gg에 접속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모집이 완료되면 2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예선전이 진행되고 종목별 결선전은 다음 달 6일 비엔날레전시관 5관 현장 무대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대회 상금은 작년 대회 대비 400만 원 늘어나 총 1000만 원 규모로 종목별 1위부터 4위의 성적을 거 둔 팀에게 북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주어진다.

결선전 당일 행사장에는 '북구청장배 TCG(트 레이딩 카드 게임) 대회', 닌텐도 체험존, 스포츠 코칭존, 추억의 오락실, 웹툰 그리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대회에 전국의 e스포츠 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오늘날 게 임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전 세계 인구가 열광하는 문화이자 유망 산업으로 발전한 만큼 앞 으로도 지역 내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서구, 미니 취업박람회

광주시 서구가 지난 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광주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해 지역 우수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고 채용·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7개 기

업과 청년·중장년 등 구직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서구, 추가 특례보증 지원 한달만에 21억 소진

광주시 서구가 경기침체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 해 추진 중인 '추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9월 총 65억여 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마련, 시행 한 달여 만에 21억여 원 (33%)이 소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

공인·자영업자 등이 무담보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서구는 최대 1년간 5% 이내 대출이자를 지원하다

특히 서구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반경 300 m 이내 상가에 총 36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서구는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 과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다 는 방침이디

앞서 서구는 지난 9월 19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구비 3억원 출연과 함께 광주은행의 2022·2023년도 잔여한도 29억 2000만원을 전환해 총 65억 2000만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려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월 1차 특례보증을 통해 소 상공인 222명에게 42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 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경영안성에 기여했나.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제공〉

